

“버스 현장서 노동3권 노골적 유린”

전북지역버리지부, 창구단일화 기간 중 회사대표와 중간관리자가 노조 가입 방해... 투쟁 선포

민주노총 가입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고가의 소고기와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한 전주 시내버스회사의 대표와 영업과장이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리지부(이하 민주노총)는 지난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시내버스회사인 성진여객 대

표 김민수와 영업과장 강진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작년 4월, 노조법에 따라 성진여객에 소속된 노동조합들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시기 다수노조였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일부가 한국노총과 사측의 처우에 불만을 갖

고 민주노총 가입 움직임을 보이자, 소수노조였던 민주노총이 다수노조가 되는 것을 우려한 성진여객 대표 김민수와 영업과장 강진구는 해당 직원들을 모아 고가의 소고기와 노래방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해당 정황이 담긴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성진

여객 대표 김민수와 영업과장 강진구를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버스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유린되고 있다”며, “사측의 노동조합 지배개입 행위를 규탄하고 사업주와 중간관리자의 엄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경제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앞장’

전북농협, 지난 해 판매액 1258억원 중 약 400억원 가량 판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앞장서며 전북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한 군산·김제·남원·장수·임실·완주 등 6개 시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상품권 판매 및 회수 업무를 취급중이며 올해 1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전북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1258억원 중 약 400억원 가량을 판매했으며 이는 전라북도 발행액의 약 31%를 차

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은행은 전북 모든 시군에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어 도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착한 소비”를 이끌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불러일으키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흥행으로 관내 각 지자체는 올해 약 4200억원 규모의 상품권

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협은 올해 3월말까지 약 500억원 가량을 판매하며 지역 상권을 살리는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지역 경제를 위한 착한 소비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다”며, “착한 소비를 이끄는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노력하는 전북도민의 ‘착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행사 추진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재근)은 지난 30일 오전에 진안군·음 정곡리 한우·양돈 농장, 오후에는 장수군 천천면 구신길 한우 농장을 방문하여 나눔축산운동,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사)나눔축산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행사는 농촌지역의 축산 인근 마을에 축협 임직원들이 방문하여 철쭉, 꽃잔디 등을 식재하여 예쁜 화단을 만들고 마을을 청소함으로써 축산업의 부

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깨끗한, 아름다운 등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운동이다.

송재근 조합장은 “축산업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축산환경개선의 필요성 인식과 자발적 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냄새 없고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행사를 계기로 축산농가가 농장을 항상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



전북농협과 무진장축협이 지난 30일 진안군 정곡리 한우·양돈 농장, 장수군 구신길 한우 농장을 방문하여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중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5대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고추전북협, 농산물 제값받기 앞장 결의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고추전북협회의(회장 곽동열)는 지난 3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관내 고추 주산지 농협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고추전북협회의 정기총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전북 고추 판매확대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관측행사를 하기로 했다.

또한, ‘고추 채소가격안정제’와 전북 도회저가격보장제’를 통한 유통개선과 회원 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고추산업발전을 위해 지

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다.

회원들은 고추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확대해 농가의 소득안정을 유지하며, 수급 불안정시 수매비축, 출하 조절 등 단계별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재배기술 및 세척 건조 등 재배 농가의 생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곽동열 회장(무주농협 조합장)은



전북농협과 고추전북협회의가 지난 30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관내 고추 주산지 농협조합장 16명으로 구성된 고추전북협회의 정기총회를 가졌다.

“고추산업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협의 회원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고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소득 지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뜻밖의 선물, 깜짝 출시 New!
EASTAR BABY CREW
이스타 베이비크루와 함께 특별한 날을 기념해보세요!

이스타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복 '이스타 베이비크루'를 깜짝 출시해 한정 판매한다.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의 특별한 선물’
이스타항공, 신규 기념상품 유아복 '베이비크루' 2종 출시

이스타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유아복 '이스타 베이비크루 (Baby Crew)'를 깜짝 출시해 한정 판매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스타 베이비크루는 12개월 이내 유아가 입을 수 있는 바디수트 형태의 유아복으로 이스타항공만의 특색을 담은 파일럿, 캐빈승무원 상품 2종으로 출시한다.

특히, 한복의 치맛받기를 표현한 빨간색 허리부분 포인트와 승무원들의 상징인 wings 은빛 자수로 수놓는 등 실제 유니폼의 디테일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스타 베이비크루는 기존 로고 상품과는 달리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실용 제품으로 항공여행을 하는 아이를 위한 기념선물은 물론 가족사진, 기념촬영 등 개인 SNS 에도 활용할 수 있어 여행의 추억과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기내와 온라인 이스타항공 로고샵(www.eastarshop.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소비가 가격은 6만 원이며 출시를 기념해 기내에서는 5만 8천 원에 판매하며 선물을 위한 스페셜 패키지가 함께 제공된다.

이스타항공은 이외에도 지난 4월부터 기내에서 태국과 베트남, 일본 등 국제선 노선에서 유심(USIM)을 판매하고 있다.

기내에서 구입한 유심칩을 핸드폰에 장착만 하면 현지에서 바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 공항이나 현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가족여행이 많은 5월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의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신규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화훼류 소비가 많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케이션, 백합 등 절화(折花)류 수요가 급증하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전후하여 저렴한 외국산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점 단속한다.

단속기간 중에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화훼류 수입업체, 꽃도·소매상(화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

을 벌인다. 특히, 화훼류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내산에 비해 값이 싸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